로컬플러스

군산보건소,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 및 자살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시 보건소는 이달 영광중학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지역 내 초·중·고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사랑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동영상 교육과 함께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및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게 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공지사항은 홈페이지(www.ksmhc.or.kr)에 안내되어 있으며, 상담 및 문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마음건강클리닉(445-9191)로 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부의장 퇴직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군산시의회 한경봉 부의장이 지난 21일 부의장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부의장은 지난 제193회 폐회때 음주운전으로 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개사과'의 징계처분 등 법적, 행정적 처분을 받았다.

한경봉 부의장은 "거취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다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평의원으로 군산과 군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밤길 안전 지킴이 교육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동네 우리가 지킨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1일 오후 7시경 익산시청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밤길 안전지킴이' 3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남중동 일대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날『우리동네 밤길 안전지킴이』의 안전한 순찰과 효율적인 방범근무를 위해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등의 범죄발생시 신고요령 등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교육이 끝난 후, 남중동 일대 소공원,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도 실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산업단지 활성화 모색

산단 전북본부와 가동률·분양률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 논의

군산시(시장 문동신)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종인)는 22일 산단공 회의실에서 군산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단 가동률과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미착공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 방문을 통해 투자 의지가 없는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키로 하고, 건설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진행사항 파악과 소필화를 추진해 산단 가동률과 분양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군산국가산단과 군산2국가산단에 대한 명칭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는 22일 산단공 회의실에서 군산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산업단지공단과 지속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해 산단 입주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적극 해소해 나가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투자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군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해마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규제개혁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는 등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농기센터-창혜복지재단 업무협약 체결

지적장애인 직업·자립재활 돕기위해 딸기 수경재배 기술 지원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재활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인 창혜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딸기수경재배 지술을 지원한다.

22일 오전 센터 내 농업인교육관에서는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해 권의진 창혜복지재단 이사장, 국제로타리 3670지구 마한로타리 박경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덕기동에 소재한 창혜복지재단은 특수교육학교인 전북혜화학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창혜원, 중증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청록원, 중증지적장애인 요양시설 홍주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해피드림 등을 운영하며 200여명의 장애인들이 자립재활을 돕고 있다.

창혜복지재단은 올해 지적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자립재활을 위해 딸기수경재배를 추진하기로 했다.

창혜복지재단에 지원되는 수경재배 시설은 국제로타리 3670지구 마한로타리(회장 박경수)에서 익산지역로터리협의회의 지지와 뜻을 모아 국제파트너와 함께 기금을 마련하여 후원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창혜복지재단 수경재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원예전문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보급과 원예작물계를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지적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립재활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식물과 원예활동은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길러주고 육체적, 정신적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원예치료)으로 잘 알려져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체결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나무전정, 화분가리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적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열려

2016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가 22일 오전 10시부터 익산시장 권한대행 한웅재 부시장을 비롯한 지역 내 물 관련 기관단체장,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마면 농촌 테마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익산시와 강살리기 네크워크 익산시지회 주관으로 제7557부대, 육군부사관학교, K-water,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 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 기업체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여했다?한웅재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숨 쉬는 모든 것들에게 절대적인 요소이고 소중한 자원이다.

물은 바닥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물 절약 운동에 전 시민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기념식을 마친 후 행사 참가자들은 금마저수지주변, 익산천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펼치며 물의 소중함과 가뭄,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또 푸름이 자모단 회원들은 금마면 소재지에서 『물 사랑·물 절약』 거리 캠페인을 했다.

한편 '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UN이 1992년 열린 제47차 총회에서 제정, 선포한 날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해경, 상반기 해상종합훈련 25일까지 실시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군산시 흑도 및 비응도 서방 해상에서 '상반기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팀워크 및 지휘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3013함 등 5척의 경비함정(108명)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서해해경본부 훈련단 주도하에 각종 상황 발생 시 최상의 구조 대응태세 확보에 목표를 두고 함?정장 지휘역량 및 함정, 항공대, 122구조대 간 팀워크 강화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해상사격, 인명구조, 화재선박의 소화, 검문검색 등 15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별 평가단이 평가의견을 거쳐 목표점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재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해해경본부 김인 훈련단장은 "훈련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 상황에서 침착한 대응과 전문적인 임무수행을 기대하는 것이다"며 "훈련을 통해 상황별 대응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오는 29일 지진?해일에 대비한 훈련을 연 최대 규모(11개 기관, 400명)로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증상시 구급차타자'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시민 건강에 위험요소로 분석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구급치타자'라는 건강 슬로건을 만들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나선다.

구급치타자 란 ▲구-구토와 심한 두통(심한두통) ▲급-급하게 손을 못 뻗을 때(한쪽마비) ▲차-차렷 자세로 못 서있을 때(어지럼증) ▲타-타타타 발음이 안 될 때(언어장애) ▲자-자기 앞 물체가 겹쳐 보일 때(시야장애) 이다.

구급치타자 건강슬로건은 뇌졸중의 응급증상을 일반 시민에게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전달해 건강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뇌졸중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보건소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똑똑한 환자 되기 건강클럽'과 '백세건강아카데미'를 운영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스스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은 질병부담이 크고 주요 사망원인으로써 뇌졸중의 응급증상 인지와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의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강슬로건과 각종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심뇌혈관질환예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